



- 1、教会에 革新을
- 2、社会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1971년 새 해를 맞으면서

총 회장 김 덕 성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1970년대에는 즉 앞으로 10년동안은 세계의 역사상의 큰 전환기에 서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에 있어서 우리인류역사상에 가장 중요한 변천을 가져 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0년대의 첫해인 1971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자세가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벌써 선교 10개년계획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라는 목표에 교회에 혁신을 가져오며 사회에 변혁을 일으키며 세계에 소망을 주자는 운동이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구호만 높이 걸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한 10개년계획일판으로써 KCC 회관 매수와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극추진하는 방향으로 모든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까. 금년 5월말까지 청산 되어야 할 회관건설매수에 따르는 책임액 완수와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푸로그램이 시작 되는 해라고 생각될때 그것이 비록 적고 미약한데서 출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에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교회만 지키는 일에 급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우리의 힘을 기울려 이 단절의 시대(斷絶의時代)에 있어서 무기력한 교회가 되지 않고 주님에게 깊이 뿌리박은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나가 주님과 동역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는사회에 변혁을 일으킬 책임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온 과거를 반성할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증거

의생활을 해오지 못한 것을 솔직히 자백하지 않을수 없으며 우리는 앞으로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참여를 적극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재일한국인 61만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사회에 살면서 기독교적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민족적차별에 의한 인권침해에 의한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당한 발언을 해야 하며 또한 민족의 통일과 동포의 융화단결을 위한 노력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사명과 주님의

부르침에 응답하여 복음선교와 사회를 섬기는 책임 완수를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곤난과 싸워가며 아름다운 성과를 거두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적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상황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며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믿음으로 전진 비약하는 해가 되기를 실토기원하며 여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심을 깊이 믿는 바입니다.

여전도회 2월 월례회를 위하여

영혼의 양식

봉사의 정신

마가 10:45 · 갈라디아 6:1~10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란 그 생활이 아들 예수님을 본 받은 그의 사랑의 법을 따라 한결같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변함없이 순조로우수가 없는 것이 또한 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알 수 없는 사이에 죄와 더 불어 가지가지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교회에서 생기는 일들을 잘 알았습니까. 믿음으로 경건해진 훌륭한 사람도 뜻밖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범죄」라는 말(원어)의 뜻은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니라 빙판이나 위험한 길에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곳 오오사카 시내에서

는 그리 실감이 나지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수도 서울 시가를 눈내리는 추운 겨울날 걸어다닐때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한 거리에서 잘 차란 신사숙녀들이 버란간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참을수 없는 웃음보를 터뜨리다 보면 또 어느새 자기도 넘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보거든 은근히 좋아하지 말고 반성하여 자기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함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만을 경계하여 자만을 피할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이루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앞에서 과연 우리의 최선을 다 하였나

하는 것을 일일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은 커녕 도로혀 얼굴을 붉혀야 할 일들 뿐입니다. 이렇게 항상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살피며 바로잡는 일에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중하는 이들 신령하다는 이들이 때로는 더 남의 죄과에 대하여 가혹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으로 죄인에게 대하여는 잔인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일 누가 의의에 넘어지면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참 선자의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바로잡는다는 말은 수선한다는 뜻인데 의사가 무엇을 배어버리거나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로잡음이란 낫게 고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벌이 아니요 잘못된 것을 그저 덮어 두는 것도 아니요 힘들게 수선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로 잡는 일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들의 이상이고 소원하는 바이지만 교회와 가정과 이웃생활에서 무시로 이 아름다운 의무를 저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여기에서 우리들은 다시다시 예수님의 그 고마우신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리며 그 어려운 배우고 간구하고 힘입고자 합니다. 「인자의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가10:45)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우리의 죄점을 대신 지시

고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인류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마지막에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봉사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역을 할 답답함 괴로움이 아무리 참기 어렵다 한들 그 십자가그늘밑에서는 아무 할말이 없습니다. 끝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여기에 근거하여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가 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함께 걱정하고 같이 수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가면서 주님을 모르는 세상을 밝혀가야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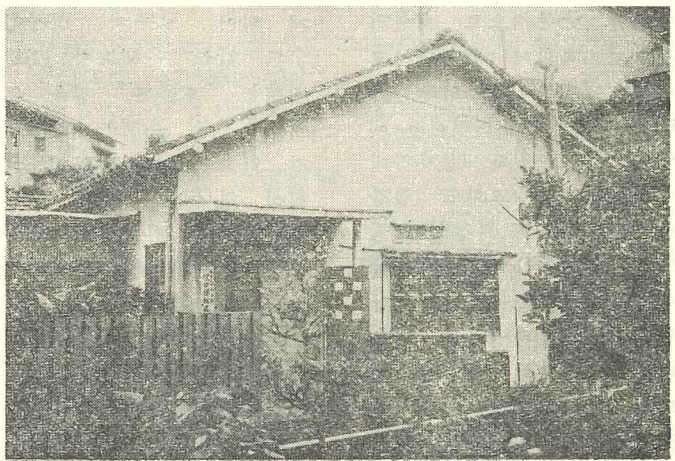
(2편으로)

佐世保전도소

이전

1949년 2월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섬기현목사가 단기선교사로 개척한 佐世保는 박창환장도사가 전임교역자로 부임한후 정식 서남지방회 직속전도소로 승인을 받아 2년간 매주일 정기에 배를 지켜 내려오다가 이번에 아태주소에 독점을 얻어 앞으로 佐世保교회로 되는 기초를 닦게 되었다. 박창환장도사의 총성원 활동은 어려운 개척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현재 정기예배출석수는 평균 8명이라 한다.

佐世保전도소
〒857 佐世保市東大久保町
2-23



1971년의 指向

인 간 회 복

KCC 센터-의 역할

제일한인교회가 일본이라는 장소와상황속에서 형성되어 왔다는것으로 새해의 우리의 전망은 일본을떠나서는 생각할수없다 일본을 직시하면서 오늘의 문제점을 찾아 내야한다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의체질과 그과학공업으로말미암아 이루어진 문화는 인간을 경제적 동물이라고 말하게된 사회현상을 이룩했다 인간상실 그것이다 인격의존엄을 경제로서 무시해버리고 기본적인권이 금전으로 계산하게되고 반동적정책으로 억압을 당하고 인간공통의 행복은 물질의 풍부함에 있는것 같이 생각하고 인간존엄의 의의와인간의 가치가 물질문화의 가치판으로 헤아리게 되었다 1970년은 인간상실과 자기상실로 끝나고 새해를 맞이한 것이 일본이다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지게된 1971년의 가장 큰 과제는 인간회복이다 예수는 인간을찾아 세상에 오셨고 교회는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찾는것이 목적이요 인간의 주권과부활을 본질로한다 만약 교회가 잃어버린 인간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고르쓰가 말한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다 KCC센터-의 역할은 교회의 오늘의 역할이라고 할수있다 1971년은 우리의 모든기능을 집중시켜 인간회복을 지향해야한다 이것은 교회체질개선이 다 예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있는것이 사람 안식일을 위해있는것이 아니라 하시고 재래종교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것같이 교회나 신조나 교리도 예수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것이요 예수는 사람을위해 십자가에 죽으신것이다 교회는 인간회복을 목표로 제일61만 동포를 향하여야한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찾아 사람위해 모든힘과역사를 기우려야한다 교회가 소수의 신도의 자기보존에만 그치는것은 용서못할것이다 교회

는 남을위하여있다 KCC 센터-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아니라 사람을 산사람으로만드려는것이다 자선사업이 아니며 구제사업이 아니다 인간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역할이다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거지에게 금전을 주지않고 제발로 걸어 가게 한것처럼 生野지역에 사는 모든사람들을 자립하고 제발로 걸어 갈수 있는 사람을 만드려는 것이 다 참인간의 회복을 지향하고있다 이것이 이해의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인 것이다

KCC 中間金

지 불 완 료

KCC (生野地域센터) 건설에 있어서 제1차건설을 1970~71년으로 정하고 9월8일에 계약금 2,500만원을 지불하고 중간금 4,000만원을 12월21일에 지불하였다 우리로서는 감당하기어려운 거액의 계약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뜻하지않는 크나큰 도움도 받게되어 무사히 이 상과 같은 6,500만원을 지불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시대에 적합한 활동을 시키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속에 착한 생각을 일으켜 주시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적당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기적적으로 충당하게 하신다

공수로 시작한 KCC사업이 단시일내로 이루어지게 되어 도무지 상상할수도 없는 은혜로서 뜻하지않는 도움과 길을 열어 주시는 은혜는 감사할 줄 없고 실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5월30일에 잔금 3,500만원을 완납하는 일과 生野지역에서 착실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일에 만단의 준비와 각오를 갖춰야 할것이다

우리총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 총의를 모아 KCC건설을 결의한 것을 다시금 명심하여 KCC자금모금에 총력을 기우려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어긋나지않도록 보답하여야 한다

현재는 현건물 (철근3층 건물)을 3월부터 지역센터로 쓸수있도록 수리중에 있는비 수리비로 85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제1차계획예산 1억1천만원중 6,500만원은 지불하였으니 남은 4,500만원을 우리가 힘을 합하여 조달해야 하는비 그 책임은 총회원각자가 자기책임으로 느껴 KCC기금모금활동에 적극 힘을써야 할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홍동근목사

경도교회 취임

9월첫주일부터 경도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홍동근목사의 위임식을 12월13일 오후 3시부터 경도교회당에서 거행 하였다

50년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나온 경도교회는 전영복목사의 사임후 거의1년간 후임으로 홍목사를 초청하여 도일수속에 힘써오다가 드디어 경도교회 제6대목사로 홍동근목사의 위임식을 거행케 된것이다

전임자인 전목사가 사회하고 새목사의 위임식을 한다는 것은 심히 드문일인데 친구위임목사의 굳은 약속으로 교회를 후임자에게 부탁한다는 교역자의 참된 모습과 경도교회의 체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듯 감격스러웠다

총회장김덕성목사의 설교와 지방회장정인수목사의 서약주례 또는 부회장김원치목사의 권장이 있은후 총회대표배기환목사 일본교회 대표로 일기경도교구장 後宮牧師、湯浅入郎박사、西村関一参議院議員、의 축사에 앞으로 경도교회가 발전해나가는 방향을 지향하는듯한 뜻깊은 위임식을 마쳤다

(1 편서부)

「약한 자의 보호자가 되고 친구 없는 자의 친구가 되라 그대의 용감한 행동은 감동을 될

해 외 동 포 에 게 보 내 는

신 년 메 세 지

대 동 령

107 경 희

친애하는 해외동포 여러분! 희망의 새 해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고국을 떠나 멀리 해외 여러나라에서 새해를 맞는 동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있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자고로 발전하는 민족 희망이 있고 장래가 있는 민족은 해외로 많이 뻗어나가서 조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외국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워 와서 민족의 중흥에 이바지 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이 해마다 해외 여러나라에 진출하여 많은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또 해외에서 다년간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은 과학자나 기술자 또는 사업가들이 귀국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국의 장래를 위하여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외에 있는 동포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간에 항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위를 드높이고 조국발전에 공헌하는바가일층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지금 고국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일면국방 일면건설의 기치밑에 북쪽에 도사리고 있는 북괴의 침략 위협에 대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치 않고 일정한 한계를 넘어 끝이 없다 그대가 만약 하나님과 같은 힘을 받으려면 남을 섬기는베로 하나님 같아라」

《자네트 B. 길다》

x x

주님이시여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생활으로 저희를 인도 하시옵소서 주님을 힘입어 자기를 부인하고 정성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조국을 하루 속히 근대화 하고 분단된 국토를 평화적으로 통일해야할 우리의 전도에는 허다한 난관과 시련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하늘은 위업을 남긴 민족에게 먼저 어려운 시련을 주었고 이러한 시련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민족만이 축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민족중흥의 도정에 가로놓인 시련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지난 8,9년동안 개발과 건설의 과정에서 보여준 강인한 의지와 신념으로 일치단결해서 계속 분발해 나간다면 어떠한 시련도 능히 극복하고 조국근대화와 국토통일의 역사적대업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읍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발전하는 조국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커다란 긍지와 시명감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스스로 힘을 기르는 지혜로운 생활을 영위해 나감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선양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멀리서 기원하는 바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이 어 지러운 땅위에 주님의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물소 우리의 죄 점을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 멘》

<訂 正>

복음신문 257号 4頁 판 동지방에서 약 300만원 欄 끝에서 6行에 「佐世保전도소」를 「横須賀전도소」로 訂正 합니다

1971年の指向

人間回復

生野地域センターによって

在日韓国人教会が日本と言う場所と状況の中に形成されて来たことの故に、新しい年を迎えての展望も必竟、日本を離れて考えられないのであって、日本を直視し、今日的の問題をたぐり出さねばならない。今日の経済生長をもたらした日本人の体質と、その科学、工業、そこから生れた文化の進歩は、人間をエコノミックアニマルと言わせる社会現象を結果づけた、人間の喪失であり、人格の尊厳が経済によって無視し去られ、基本的人権が金銭によって計算され、反動的政策によって抑圧され、人間共通の幸福が物質の豊かさにあるように考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人の存在的意義が物質文化によって意義づけられ、人間の価値観が経済的価値観に規準づけられるようになった、1970年はすべてを挙げて人間喪失を歌いあげた、人間疎外と自己喪失の深淵に立って新しい年を迎えたのが日本である。

在日大韓基督教会が負わされた1971年の最大の課題は人間回復である、キリストは人間を求めてこの世に來られた、教会は失われた人間を回復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福音は人間の救いであって、人間の死と復活が本質である、教会が失われた人間をそのままにしているならば、H・コックスの言ったように、神は教会を見捨て給うであろう。生野地域センターの働きが教会の今日的な働きであって、福音の本質を取り戻

すことであり、1971年は全機能を集中して人間回復に指向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全的な教会体質の改善である。イエスが、安息日は人のためにあるものではないと言われている、宗教の体質を全的に改革されたように、教会も信条も教理もイエスも神も、人のために賜わったのであって人が教会のため、信条のためあるのではない、イエスは人のために死に給うたのである。教会は人間回復に目指し、教会の働きが在日61万の同胞を目指しての働きでなければならない。人を愛し、人を求め、人へすべての力と業を傾けるのが真実の教会である、教会が少数の信徒の自己保存に止まることは許されない、ボネッファの言を借

りるまでもなく、教会は他のためにあるのであって、他のためでない教会は在り得ないのである。

生野地域センターは、人を助けるための働きでない、人を生かすための働きである、ほどこしをする社会事業でない、人間を回復させる福音の働きである。ペテロが美しの門で足なえの乞食に、金銭を施さず、立って歩かせた、そのように、生野地域の人々が自立し、真の人間として回復し、ほどこしを願っていたのが自分の足で立ち歩き、他人にほどこしをするような人間に回復することが生野地域センターの目指すところであり、この年の在日大韓基督教会が指向する、目標である。

韓日交流の歴史をたずねて
(二)

田 永 福 牧 師

百済寺から西南1軒、蒲生郡日野町の西にはなれて鬼室神社がある。すぐ下には蒲生川が流れて、閑寂は千古の昔を偲ばしめるものがある。この小社、鬼室神社につき、近江史縁は次の様に記している。この人は天智天皇8年(669)に百済の帰化人700余人を蒲生郡に遷居せしめられた時の首長の一人で、当時、都は

大津にあり、鬼室集斯は同10年(671)に近江朝廷の学頭職に任ぜられた、彼らの建造であろうと考えられるのが石塔寺の三重石塔である。百済人の蒲生遷居は、この地方の文化開発に力があつたにちがいない。その代表者たる鬼室集斯をここにまつことは、ゆかしいことである、鬼室というのは、鬼神感和の義である

という。この地には鬼室集斯の後裔が住み、それを室徒と、称したという。

日本人に韓国人が渡来し、日本に住みついた人達を帰化人、欽化内帰人、化内の人、投化人、来帰人と記されている日本書紀の垂仁天皇三年の条に、新羅の王子と称する天日槍の来帰を記し、又応神天皇20年の条には阿知使主とその子加使主が己が党17県を率いて来帰したと書かれている。日本の絢爛たる天平文化の中心をなす仏教が、(寧楽奈良)の都平城原聖武天皇、孝謙天皇の御代に大仏建立が進められ、9年の歳月を経て、天平勝宝4年(752)東大寺毘盧郡大仏開眼の大法会が行われた時、大仏建立の指導者であった国公麻呂は、百済の宮人徳率(第四位)であった国骨富(663年渡来)の孫であった。公麻呂は、木工51,590人、金工372,075人を手足の如く使駆して大仏を鑄し上げたと言う。大仏開眼に参加した百済王孝忠、秦忌寸首麻呂、又五節舞の舞頭、文忌寸黒麻呂、舞人、桧前忌寸の一族等はここに韓民族の文化と技術の粋を宣揚し今日の日本文化を生み出したのであった、桓武天皇が京都に遷都した時の都造りは、百済の武寧王の後裔和乙継、大枝朝臣一族が大いに力を尽したのであって、桓武天皇の生母、高野新笠は和乙継の娘にて光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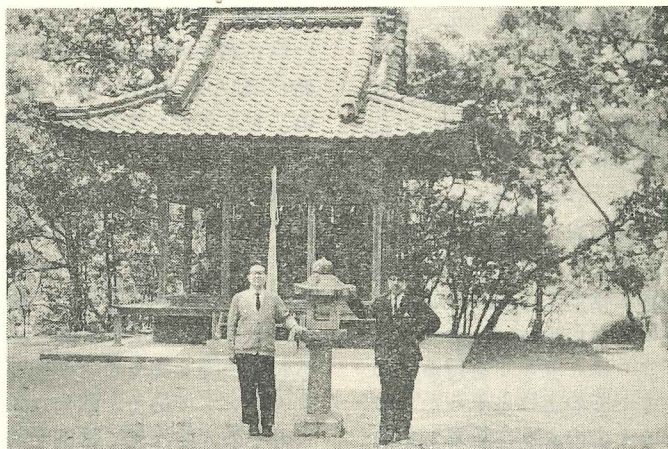
天皇の妃となり桓武を生んだのである。忠臣の名高い、坂上菟田麻呂は帰化人の直系であり、京都に文化の粋を創設した秦氏が韓民族の帰化貴族である。太秦との地名は帰化人、太秦公宅守から出たものであって、この人は長岡京造営の中心であった。紀元前後より、高句麗、高麗、新羅、百済の王族、技術人、文人の渡来は、今日の日本文化の基礎を築いたのであった。

鬼室集斯が、当時の朝廷に重く用いられたことに思いを馳せつ、悠久の歴史が人間と人間との深い人格の交りによって織りなされて来たことを思わしめられた。

和解(日本語版)

韓国家庭文書宣教会
日本支部発行誌

同胞の家庭訪問に際し配布して下さい。信仰、社会、人権等の問題を取り扱い多方面から好評を得ています。一部20円で申込んで下さい。

東大阪市南荘町9-18
枚岡教会内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教会の皆様には一泊2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
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会 指定旅館

上 椿

代表者 金 京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富田(073991)445~6
大阪案内所 大阪市北区曾根崎町2-21
電話大阪(06)341-2162

